

위기의 가정 외로운 소녀들... 친구와 함께 꽃다운 삶 내던져

니원침 (8831) 김동주

광주 북구 아파트서 여고생 2명 동반 자살

“먹고살기 빠듯, 학원 못 보내 준것이 한 될 줄이야”

갑작스런 손녀의 죽음에 할머니는 한없이 눈물 만...

“공부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는데 돈이 없어 보낼 생각을 못했네요. 학원이라도 보내줬으면 덜 미안했을텐데... 그 어린 것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3일 밤 광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와 함께 뛰어내려 숨진 광주의 한 여고생 K양(16)과 함께 살던 할머니(68)는 갑작스런 손녀의 죽음을 전해 듣고 말문을 잊지 못했다. 살림에 쪼들려 학원에 보내달라는 손녀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았던 긴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한 특성화고 1년 K·C(16)·J(15)양 등 3명은 지난 3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19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곳에서 놀던 중 K·C양이 갑자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다.

이들은 두 달 전부터 “함께 죽을 사람이 있으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한다. 이상한 낱새를 느낀 J양은 1시간 이상 두 친구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J양은 안되겠다 싶어 아파트 경비실로 뛰어내려갔다. J양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K·C양은 19층 옥상 철재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았다. 그러곤 뛰어내렸다. 결혼가정 자녀인 이들 학생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가정환경이 비슷해 평소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K양은 부모와 헤어져 할머니와

살고 있으며 C양은 부모와 떨어져 친척과 살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손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K양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43.0㎡(약 13평) 남짓한 작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는 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평소 어린 손녀의 칭얼 들어주지 못한 일을 되뇌이며 울먹였다.

K양과 C양의 오빠(18)를 어릴 적부터 돌봐온 할머니는 손녀가 바라는 것을 다해주고 싶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한 달 평균 수입 80만 원으로는 세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손녀가 최근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

올 해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보내지 못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내달라는데, 못 들어줬다. 학원이라도 보내줬으면 원이라도 없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라며 “손녀 친구들에게 들은 얘인데, (손녀가)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던 모양이다. 엄마 얼굴도 못 보고...”라며 흐느꼈다.

북부경찰은 K·C양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주변인 등 진술로 미뤄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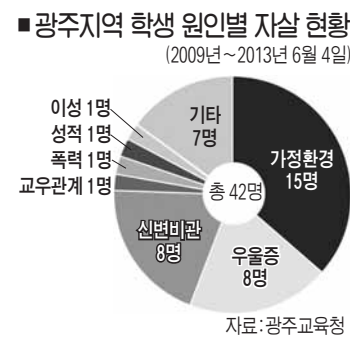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한 특성화고 1년 K(16)·C(16) 등 2명이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최근 5년 자살 청소년 42명 사회안전망 보완·생명 교육 시급



‘위기의 가정’ 학생들이 결국 자살을 택해 지역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위기 가정 지원 등 사회안전망 보완과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생명존중 교육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자살한 청소년은 모두 42명에 달했다.

이 중 남학생 22명, 여학생 20명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28명으로 3분의2를 차지했고, 나머지 3분의 1(14명)은 중학생이었다.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울증과 신변 비판이 각각 8명이고, 성적, 이상, 폭력, 교우관계 문제 등으로 삶을 포기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명에서 2010년 6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1년 10명, 2012년 9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4월까지 발생 건수가 없어 한 때 고무되기도 했지만, 두 달 전 한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40여일만에 여고생 2명이 한꺼번에 투신하자 망연자살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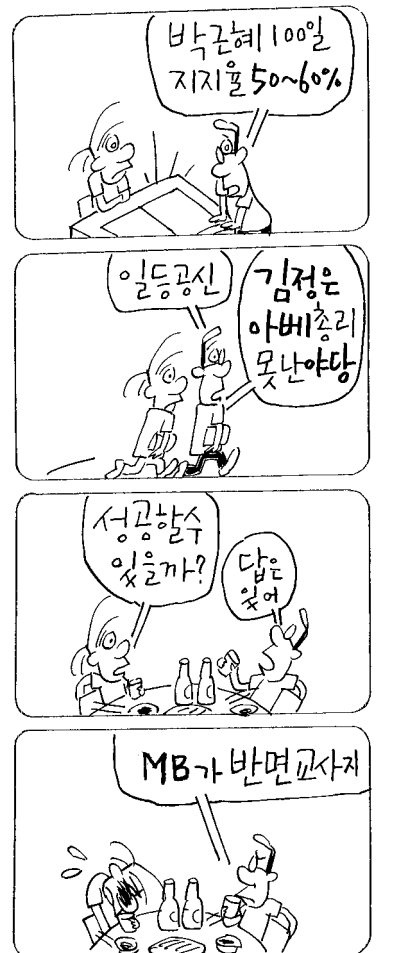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살과 정서불안을 경고하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나왔지만, 이를 막지 못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20.1%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두 번 째로 높았으며, 최근 1년간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답변(6.5%)도 전국 평균(6.3%)보다 높아 깊은 우려를 낳았다.

교육부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생 8만여명이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이며, 광주의 경우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 비율 5.6%로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자살예방센터 한 관계자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대처, 사후 관리 등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성 1000명, 윤창중 고발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000명이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 전 대변인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치스런 성폭력 외에도 대국민 거짓증언으로 피해자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전 대변인이 한국 법정에서도 처벌받게 하려고 고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 자녀 내가 지킨다” 광주 운남동 주민들 ‘패트롤 맘’ 활동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은 주민의 99%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신도시 지역이다. 이곳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분포하고 있어 주민들은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사랑 목련 허그 센터’를 설치, 학부모와 주부들로 구성된 ‘패트롤 맘’을 운영하고 안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패트롤 맘은 매월 1회 이상 학교 주

변 정화운동, 유해업소 모니터링, 야간 순찰 활동 등을 하고 범죄예방 및 취약지 관리를 위한 ‘365 안전지도’도 제작해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또 주민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접·공한지·놀이터 등 유휴공간에 길거리 농구대, 댄스·문화 공연장 등을 설치, 운영하는 행복더하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운남동의 변신은 안전행정부의 지원 아래 이뤄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자 후배 성추행’ 전 학군단원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대학 학군단에 막 입단한 남자 후배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학군단 졸업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학군단 졸업생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고 추행 직후 곧바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최근 학군단 신입 후배 A

(20·2학년)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교 전 학군단 소속 단원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80시간 이상을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 있었고 하루 전 입단한데다 피고인이 졸업반 선배였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감안,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9400만원 횡령 경찰관 파면

광주동부경찰

급여관리를 담당하며 수천만원을 횡령한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광주동부경찰은 4일 오전 징계위원회 열고 A(여·40) 경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A 경사가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직원들의 초과 근무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을 부풀려 지난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31차례에 걸쳐 9438만43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통보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중학교 앞 ‘바버리맨’ 200m 추격전

상나팔

중학교 앞 ‘바버리맨’ 200m 추격전... 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30대 ‘바버리맨’ 남성이 경찰서면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는 3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중학교 입구에서 남·녀 학생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무지구대 경찰관들과 200m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균형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커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당/청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ul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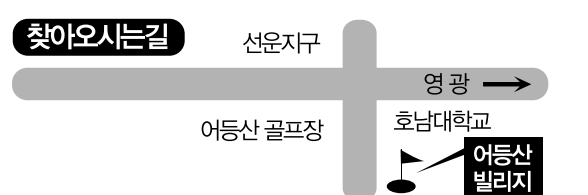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원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형외과나 성곽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완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안전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원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원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X204-중-4733호